



2, 3학년 소변검사 실시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2, 3학년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변검사는 신장의 이상과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통증 없이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평생을 힘들게 하는 신장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려워서, 조기발견,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사날짜에 학생이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검사 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

2. 검사 대상 : 2, 3학년 학생

3. 검사 비용 : 인당 1,220원(학교예산사용)

4. 검사 기관 : 학교보건협회 병리검사요원이 방문검사

5. 검사항목: 단백, 당, 잠혈, pH (요스틱검사)

6. 정확한 검사를 위한 검사 전 주의사항

- 1) 검사 전날 지나치게 많은 야채나 과일, 비타민 C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 2) 검사 전날 지나치게 심한 운동이나 과로를 하지 않습니다.
- 3) 정확한 소변검사를 위하여 아침은 먹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합니다.

7. 소변검사시 주의사항

- 1) 소변은 처음과 마지막 소변이 아닌 **중간에 나오는 소변**을 검사 막대기(스틱)에 묻힌 후 검사요원에게 결과를 보입니다.
- 2) 손으로 검사스틱의 색지부분을 만지거나 물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8. 검사 결과 안내

- 1) **검사결과 이상 발견 학생** : 검사결과에 이상이 발견되어 결과 안내문을 배부 받는 학생은 가까운 병원에서 **재검진 및 정밀검진을 꼭 받습니다.**
- 2)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학생은 결과통지서를 따로 배부하지 않습니다.

소변검사의 중요성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힘듭니다.

만성신장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가 필수입니다.

신장은 노폐물 제거, 적혈구 생산의 조절과 골형성, 혈압은 물론 전해질 및 수분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신장염은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쇠약, 빈혈, 당뇨증 등의 자각증상이 나타나 전문의를 찾았을 때는 신장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약물 요법이나 식이요법으로는 치료 불가능하고 투석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하면 대부분 약물요법, 식이요법 및 기타 보조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025. 3. 18.



전주남중학교장